

‘메세’의 나라 독일 배운다
〈박람회〉



컨벤션으로 새고 지는 도시들... 年 수입 38조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전시·컨벤션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도 지난 2006년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하고, 올 초 영암과 마케팅만을 담당하는 컨벤션 뷰로(convention bureau)를 따로 마련하면서 박람회 및 전시회, 국제회의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세계가 인정하는 전시·컨벤션산업 강국, 독일 현지취재를 통해 광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1 독일 전시·컨벤션산업 현황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AUMA·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에 따르면 매년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 3분의2가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1천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박람회 참가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다. 24개 도시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올리는 수익은 연간 230억 유로(약 38조원)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하노버 국제정보통신 박람회(CeBIT)와 산업박람회,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 베를린 농산물 박람회, 쾰른 하드웨어 박람회,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가 매년 개최되며, 전시장 규모로 세계 5위 내에 드는 곳이 하노버(49만5천265㎡), 프랑크푸르트(32만1천754㎡), 쾰른(28만4천㎡), 뒤셀도르프(26만3천888㎡) 등 4곳이 된다.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139개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전시업체 수는 16만5천757개로 전년 대비 3.8%가 늘었으며, 이 중 외국 업체가 54.2%인 8만9천813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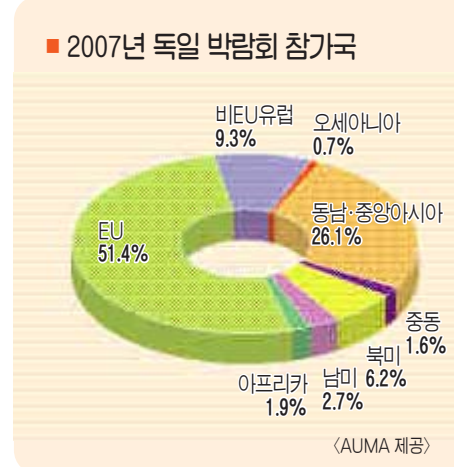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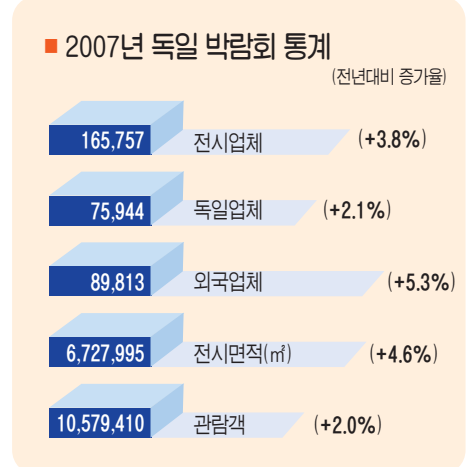
독일이 주최하지만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가 51.4%로 가장 많았고, 비EU유럽(9.3%), 동남·중앙아시아(26.1%), 북미(6.2%), 남미(2.7%) 순이었다. 또 지난해 전시면적은 672만㎡였으며, 1천57만9천410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무엇이 전세계인의 발길을 독일로 끌어들이는 것일까. 무엇보다 지리적 이점을 빼놓을 수 없다. 베를린 박람회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인 메세 베를린 홍보 담당자 미하엘 회퍼씨는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한 독일은 수백년 전부터 박람회의 전신이라 불릴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을 열어왔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 부흥에 있어 전시·컨벤션산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인근 국가나 독일 내 도시끼리 박람회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한 것도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프랑크푸르트



올해 1월 베를린 박람회장에서 열린 국제 농산물 박람회 주 전시장 풍경. 독일은 매년 140개 가량의 국제박람회를 통해 전세계인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메세 베를린 제공)



▲메세(Messe)=전시회나 박람회를 뜻하는 독일어로, 1천여년 전 가톨릭 미사(messe)가 열리던 날이면 큰 시장이 형성되던 데서 비롯됐다.

“유럽의 중심” 지리적 이점에 최고의 전시시설 갖춰 농산물 박람회 등 139개 개최... 대부분 외국업체 참가

박람회는 파리 모터쇼나 자동차부품쇼 등과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게 배치해 ‘윈-윈’하고 있다. 동일한 품목의 박람회일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순번제로 개최하거나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기도 한다. 베를린 농산물 박람회는 규모가 커지자 살게 나눠 함께 성장하고

있다.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 관계자는 “강제로 박람회 개최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독일 전체 전시·컨벤션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내용의 전시회를 열지 않도록 유도하고

독일박람회산업협회 하랄드 쿠퍼 씨 “독 연방 경제부와 긴밀 협력 박람회 주제·일정 조정 담당”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뿐 아니라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대표 자격으로 EU에도 힘을 미친다. 박람회 운영자간 주제를 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쿠퍼씨는 “박람회 관련 산업 종사자 교육과 연구 등이 주요 업무여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독일 연방 경제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UMA 사무실 한 칸에는 5천여권의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자료가 있다.

AUMA 운영은 매년 회원들이 내는 400만 유로(66억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회원은 각 전시업체 대표자와 산업별 조합의 대표자 등 84명이다. 직원은 30여명. 독일 박람회 관련 책자를 한 국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출판해 180만부를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쿠퍼씨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1천350개 업체가 독일 박람회를 찾아 지난 2005년 1천173개에 비해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는가 보다는 높은 성장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AUMA는 독일 연방정부와 입법부 등에 이익단체로서 정책 등

“박람회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성장에 있어 독일무역박람회산업협회(AUMA)의 역할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다. 전시·컨벤션산업과 관련한 정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AUMA’다. 지난 1907년 설립돼 올해로 101년째를 맞는 AUMA 홍보담당 하랄드 쿠퍼씨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독일 전역 업체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50여년 전부터 전시업체나 방문업체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AUMA는 독일 연방정부와 입법부 등에 이익단체로서 정책 등

있다”고 말했다. 전시·컨벤션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아시아와 미주 등이 독일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일은 박람회 브랜드 수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맞서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 최대 박람회인 하노버의 세빛은 올해 같은 이름으로 터키 이스탄불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하노버 박람회장 운영 법인 도이체 메세의 홍보 담당자 모니카 브란트씨는 “장래성을 엿볼 수 있는 중국, 터키, 호주, 인도, 브라질, 미국 등 6개국에는 아예 자회사를 차려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하노버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이유 때문인지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0년 이후 방문객들이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더우시죠? 지치고 피로하시죠?

무더위와 자외선이 강해질수록 항산화제 보강, 이로나민씨들러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강한 자외선으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여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비타민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를 보강한 이로나민씨들러스는 발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이로나민씨들러스

- 항산화제 보강: 비타민C, E, 셀레늄, 아연 등 영양학적 보강
- 피로, 눈의 피로, 두통, 두근거림

항생비타민 피로회복제 - 이로나민 골드

- 중추기 흥분: 활성비타민 B1, B6, B12와 비타민D, E
- 피로, 신경통, 건망증, 병후·병후 회복차지

1. **이로나민씨들러스**는 약국, 건강식품점, 편의점에서 구입하세요. **셀레늄, 아연 보강** 비타민C 200mg (25% 과다)

문의: 02-22-10111 | www.ironamin.com